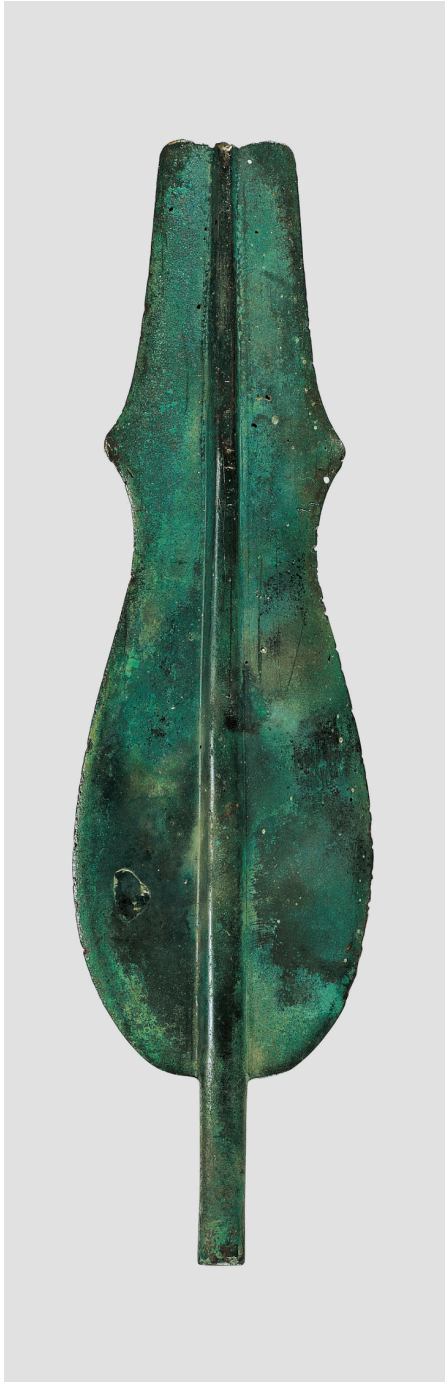


계명대 행소박물관, TK지역 유물 특별전...민화 등 120여점 전시

등록 2024.05.22 15:53:30



비파형동검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계명대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 보물 진주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등 120여점을 전시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대명캠퍼스에서 1978년 개관 이래 대구·경북지역의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 온 명품 박물관의 가치를 느껴보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7개의 주제로 나뉘져 있다.

1부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의 보물 창고로 도약하다'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청도 예전동 출토로 알려진 비파형동검을 비롯해 원삼국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 중국 한나라 계열 유물, 일상생활용기로 청자를 닮은 고려시대 질그릇과 '을유'가 새겨진 범종 등을 전시한다.

2부 '국보와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금석문 소장 명품 박물관'에서는 노중국 계명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167점의 귀중한 탁본 자료 중 삼국시대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적성 지역을 점령 후 세운 비인 국보 단양적성비와 고대 신라 사회의 제방 건설 과정을 알려주는 보물 대구 무술오작비 탁본 자료를 볼 수 있다.

3부 '그림으로 그린 지도, 보물이 되다-명품 진주성 그림 소장 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영향 속에서 진주성 안팎의 주요한 관아, 향교 등의 건축물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마치 하늘에서 본 것과 같이 그려 넣은 회화식 지도인 보물 진주성도와 또 하나의 진주성도를 함께 전시하여 조선 후기 진주성과 영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4부 '행복과 염원을 그리다-명품 민화 박물관'에서는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60여점의 명품 민화 중 대표적인 물고기와 게 그림, 관동팔경 그림, 설화 그림과 함께 계명대학교 한국민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연꽃 그림과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함께 전시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화의 세계를 선보인다.

5부 '옛사람들의 정신과 미의식을 담다-수준 높은 도자 명품 박물관'에서는 청자 연꽃무늬 네 귀 달린 항아리, 분청사기 철화 넝쿨무늬 장군, 백자 청화 구름과 용무늬 항아리 등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구입한 대표적인 도자기를 전시한다.

6부 '옛사람들의 일상을 품다-민속생활사 명품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의 안방과 사랑방을 장식했던 민화와 함께 아름다운 조개껍데기로 옛사람들의 소망을 장식한 나전 함과 이층 농 그리고 참외 모양 벼루, 나무 베개와 팔걸이, 십장생이 새겨진 도시락통 등을 전시하여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7부 '동아시아 화폐의 변화를 엿보다-화폐 전문 박물관'에서는 전석길 계명대 의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2910점 중 대표적인 화폐 46점을 전시해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화폐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교육센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 중심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창립 125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입력 2024-05-22 15:35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수집한 보물 진주성도. 계명대 제공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 보물 진주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120여점을 전시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대명캠퍼스에서 1978년 개관 이래 대구·경북지역의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 온 명품 박물관의 가치를 느껴보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교육센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 중심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와 연계해 23일에는 문화유적답사를, 6월 11일 오후 2시에는 '진주성도 이야기(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를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공휴일에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계명대 행소박물관,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 기증·유물' 특별전

전수정 기자 je_100@naver.com 입력 | 수정 2024.05.23 13:59

창립 125주년 기념 7개 주제

오는 8월 31일까지 전시 개최



전시품 '십장생 투각 찬합'. 사진제공=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 보물 진주 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

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약 12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는 7개 주제로 나뉘져 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교육센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 중심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시와 연계해 23일은 문화유적답사를, 다음달 11일은 '진주성도 이야기(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운영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계명대 창립 125주년 기념 TK지역 유물 특별전 개최

2024-05-22 20:11



'청자 연꽃무늬 네 귀 달린 향아리'[계명대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계명대 행소박물관은 계명대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 보물 진주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등 120여점을 전시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대명캠퍼스에서 1978년 개관 이래 대구·경북지역의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 온 명품 박물관의 가치를 느껴보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7개의 주제로 나뉘져 있다.

1부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의 보물 창고로 도약하다'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청도 예전동 출토로 알려진 비파형동검을 비롯해 원삼국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 중국 한나라 계열 유물, 일상생활용기로 청자를 닮은 고려시대 질그릇과 '을유'가 새겨진 범종 등을 전시한다.

2부 '국보와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금석문 소장 명품 박물관'에서는 노중국 계명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167점의 귀중한 탁본 자료 중 삼국시대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적성 지역을 점령 후 세운 비인 국보 단양적성비와 고대 신라 사회의 제방 건설 과정을 알려주는 보물 대구 무술 오작비 탁본 자료를 볼 수 있다.

3부 '그림으로 그린 지도, 보물이 되다?명품 진주성 그림 소장 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영향 속에서 진주성 안팎의 주요한 관아, 향교 등의 건축물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마치 하늘에서 본 것과 같이 그려 넣은 회화식 지도인 보물 진주성도와 또 하나의 진주성도를 함께 전시하여 조선 후기 진주성과 영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4부 '행복과 염원을 그리다?명품 민화 박물관'에서는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60여점의 명품 민화 중 대표적인 물고기와 게 그림, 관동팔경 그림, 설화 그림과 함께 계명대학교 한국민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연꽃 그림과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함께 전시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화의 세계를 선보인다.

5부 '옛사람들의 정신과 미의식을 담다?수준 높은 도자 명품 박물관'에서는 청자 연꽃무늬 네 귀 달린 항아리, 분청사기 철화 넝쿨무늬 장군, 백자 청화 구름과 용무늬 항아리 등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구입한 대표적인 도자기를 전시한다.

6부 '옛사람들의 일상을 품다?민속생활사 명품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의 안방과 사랑방을 장식했던 민화와 함께 아름다운 조개껍데기로 옛사람들의 소망을 장식한 나전 함과 이층 농 그리고 참외 모양 벼루, 나무 베개와 팔걸이, 십장생이 새겨진 도시락통 등을 전시하여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7부 '동아시아 화폐의 변화를 엿보다?화폐 전문 박물관'에서는 전석길 계명대 의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2910점 중 대표적인 화폐 46점을 전시해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화폐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교육센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 중심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 인쇄하기

✕ 닫기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계명대 행소박물관, 박물관 기증·유물 특별전 열어

안상수 기자 | 승인 2024.05.23 15:10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계명대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 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 보물 진주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약 120여점을 전시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개관 이래 대구·경북지역의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 온 명품 박물관의 가치를 느껴보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와 연계해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진주성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운영한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안상수 기자 ass1920@naver.com

계명대 행소박물관, 계명대 창립 125주년 기념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유물 특별전' 열어

✎ 김상진 기자 | ☎ 승인 2024.05.23 17:32

계명대학교는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오는 8월31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연다.

이번 특별전은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수집한 보물 진주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등 120여 점을 전시한다.

행소박물관은 대구·경북지역의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명품 박물관의 가치를 느껴보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7개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1부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의 보물창고로 도약하다'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청도 예전동의 비파형동검을 비롯해 원삼국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 중국 한나라 계열 유물, 일상 생활용기로 청자를 닮은 고려시대 질그릇과 '을유'가 새겨진 범종 등을 전시한다.





비파형동검

2부 '국보와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금석문 소장 명품 박물관'에서는 노중국 계명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167점의 귀중한 탁본 자료 중 삼국시대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적성 지역을 점령 뒤 세운 국보 단양적성비와 고대 신라사회의 제방 건설과정을 알려주는 보물 대구 무술오작비의 탁본 자료를 전시한다.

3부 '그림으로 그린 지도, 보물이 되다-명품 진주성 그림 소장 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영향 속에서 진주성 안팎의 관아와 향교 등 건축물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마치 하늘에서 본 것과 같이 그려 넣은 회화식 지도인 보물 진주성도와 다른 진주성도를 함께 전시해 조선 후기 진주성과 영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4부 '행복과 염원을 그리다-명품 민화 박물관'에서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60여 점의 명품 민화 중 대표적인 물고기와 게 그림, 관동팔경 그림, 설화 그림과 함께 계명대 한국민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연꽃 그림과 까치 및 호랑이 그림을 함께 전시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화의 세계를 선보인다.



민화 '백수백복'

5부 '옛사람들의 정신과 미의식을 담다-수준 높은 도자 명품 박물관'에서는 청자 연꽃무늬 네 귀 달린 향아리, 분청사기 철화 닙쿨무늬 장군, 백자 청화 구름과 용무늬 향아리 등 행소박물관이 구입한 대표적인 도자기를 전시해 옛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청자 연꽃무늬 네 귀 달린 향아리

6부 '옛사람들의 일상을 품다-민속생활사 명품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의 안방과 사랑방을 장식했던 생활용품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조개껍데기로 옛사람들의 소망을 장식한 나전 함과 이층 농 그리고 참외 모양 벼루, 나무 베개 및 팔걸이, 십장생이 새겨진 도시락통 등 전시품에서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옛볼 수 있다.



십장생 투각 찬합

마지막으로 7부 '동아시아 화폐의 변화를 옛보다-화폐 전문 박물관'에서는 전석길 계명대 의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2천910점 중 대표적인 화폐 46점을 전시해 동아시아 화폐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해 23일에는 문화유적 답사를, 6월11일에는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을 초청해 '진주성도 이야기'란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각각 진행한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계명대 125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4/05/23 [15:30:39]

진예슬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슬 기자=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계명대 창립 125주년을 맞아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 계명대 창립 125주년 기념 특별전시전 개최 (C) 계명대

이번 특별전에서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 보물진주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약 120여 점이 소개된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대명캠퍼스에서 1978년 개관 이래 대구·경북지역의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 온 명품 박물관의 가치를 느껴보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개 주제로 나누어진 전시와 함께 23일에는 문화유적답사를, 6월 11일 오후 2시에는 '진주성도 이야기(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라는 주제의 명사초청 특강이 운영된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교육센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 중심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Keimyung University's Haengso Museum announced on the 23rd that it will hold a 'Museum Created Together - Special Exhibition of Donated and Purchased Artifacts' to commemorate the 125th anniversary of Keimyung University's founding.

In this special exhibition, Keimyung University Haengso Museum will exhibit archaeological relics, folk paintings, ceramics, and folk relics from Korea and China that can be used to examine the prehistoric and historical culture of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including the Jinju Castle Map, a treasure collected through donations and purchases since its opening in 1978. About 120 pieces of old currency are introduced.

Since its opening in 1978 on the Daemyung Campus, Keimyung University's Haengso Museum has made great efforts to secure artifacts that can be said to be the basic requirements of a museum through donations and purchases along with academic excavations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This exhibition is expected to be a great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value of the luxury museum that everyone has created together and to appreciate various artifacts.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divided into seven themes, a field trip to cultural relics will be held on the 23rd, and a special lecture by a prominent figure titled 'The Story of the Jinju Saints (Jang Sang-hoon, Director of the Jinju National Museum)' will be held at 2 p.m. on June 11.

An official from the Keimyung University Haengso Museum said, "We will strive to become an education-centered luxury museum that plays a key role as a center for student education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계명대 행소박물관, 창립125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2 17:14



프린트

취소



▲제공=계명대



계명대 창립 125주년 기념... 7개 주제별로 120여점 전시

1978년 개관후 기증과 구입을 통한 보물과 유물 한 자리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 이래 기증과 구입을 통해 수집한 보물 진주성도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 유물과 민화, 도자기, 민속유물,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약 120여 점을 전시한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대명캠퍼스에서 1978년 개관 이래 대구·경북지역의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 온 명품 박물관의 가치를 느껴보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7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1부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의 보물 창고로 도약하다'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청도 예전동 출토로 알려진 비파형동검을 비롯해 원삼국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 중국 한나라 계열 유물, 일상생활용기로 청자를 닮은 고려시대 질그릇과 '을유'가 새겨진 범종 등을 전시해 대구·경북지역 선사·역사 문화의 보물 창고로서의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2부 '국보와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금석문 소장 명품 박물관'에서는 노중국 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167점의 귀중한 탁본 자료 중 삼국시대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적성 지역을 점령 후 세운 비인 국보 단양적성비와 고대 신라 사회의 제방 건설 과정을 알려주는 보물 대구 무술오작비 탁본 자료를 전시한다.

3부 '그림으로 그린 지도, 보물이 되다-명품 진주성 그림 소장 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영향 속에서 진주성 안팎의 주요한 관아, 향교 등의 건축물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마치 하늘에서 본 것과 같이 그려 넣은 회화식 지도인 보물 진주성도와 또 하나의 진주성도를 함께 전시하여 조선 후기 진주성과 영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4부 '행복과 염원을 그리다-명품 민화 박물관'에서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60여 점의 명품 민화 중 대표적인 물고기와 게 그림, 관동팔경 그림, 설화 그림과 함께 계명대학교 한국민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연꽃 그림과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함께 전시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화의 세계를 선보인다.

5부 '옛사람들의 정신과 미의식을 담다-수준 높은 도자 명품 박물관'에서는 청자 연꽃무늬 네 귀 달린 향아리, 분청사기 철화 넝쿨무늬 장군, 백자 청화 구름과 용무늬 향아리 등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구입한 대표적인 도자기를 전시하여 옛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6부 '옛사람들의 일상을 품다-민속생활사 명품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의 안방과 사랑방을 장식했던 민화와 함께 아름다운 조개껍데기로 옛사람들의 소망을 장식한 나전 함과 이층 농 그리고 참외 모양 벼루, 나무 베개와 팔걸이, 십장생이 새겨진 도시락통 등을 전시하여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7부 '동아시아 화폐의 변화를 엿보다-화폐 전문 박물관'에서는 전석길 계명대학교 의학과 명예교수가 기증한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2,910점 중 대표적인 화폐 46점을 전시하여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화폐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앞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교육센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 중심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와 연계해 23일에는 문화유적답사를, 6월 11일 오후 2시에는 '진주성도 이야기(장상훈, 국립진주 박물관장)'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운영한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jmson220@ekn.kr

손중모 (jmson220@ekn.kr)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맞아 박물관·도서관 소장 유물 특별전

✎ 한상형 기자 | ⓒ 승인 2024.05.28 09:04



동산도서관 소장 '용비어천가' [사진출처=계명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계명대는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대학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소장품 전시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함께 만들어 온 박물관-기증·구입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소박물관이 1978년 개관한 이후 기증받거나 구입해 수집한 유물과 민화, 도자기, 한국과 중국의 옛 화폐 등 120여점을 소개한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영향을 받아 진주성 안팎을 회화처럼 그린 지도인 '진주성도', 경북 청도 예전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비파형 동검', 국보인 '단양적성비'의 탁본 자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계명대 동산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보물급 고문헌과 옛 성경을 소개하는 '동산도서관에서 만나는 보물과 고 성경' 전시회를 연다.

올해로 개관 70주년을 맞은 동산도서관은 국가 문화유산을 비롯한 고문헌 8만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옛 성경과 찬송가 등 180여점을 보관·전시하는 고성경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용비어천가' 등 국가 문화유산 23종을 포함한 보물급 고문헌 50여점, 옛 성경 30여점을 선별해 공개한다.

두 전시회 모두 관람료는 따로 없다.

한상형 기자 han@lecture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